



3면

"세민금에 국제창업투자구조성할 것"

전주매일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음 7월 10일) 제28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지역환경 보건계획 수립 환경성질환 역학조사 직접 수행

전북도, 정부 추진 업무 일부 광역지자체 이관 '환경보건법' 개정 따라 조례 제정

익산 장점마을 사례 교훈삼아 도민 청원신청 적극 대응 건강피해 최소화 방침

전북도가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관련 업무의 일부가 광역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로, 환경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내 여건을 반영한 내실있는 정책 수행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환경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추진,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지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 영향조사반 구성·운영 등이다.

2022년에는 환경보건과 관련한 현황과 여건, 환경 유해인자 저감 등 도민 보호 방안 민간계층과 취약계층 관리 방안 등 전북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

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역학조사와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환경오염물질로 집단 암을 일으킨 장점마을 사례를 교훈삼아, 역학조사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청원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역학조사'는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되는 사전 예방조사로, 배출원 중심의 유해인자 노출평가 등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해, 필요시 저감대책 등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된다.

'청원조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를 요청하는 주민의 청원신청에 대해 유해인자 노출평가와 주민건강조사 등을 실시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배상책임 등을 지게 되므로, 향후 조사결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병행한 계획이다.

한편 장점마을 사태를 겪은 2019년 이후 전북도는 유해 환경요소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환경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27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과 오염도검사를 실시해 124개소를 행정처분하고 개선했으며, 주요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추진,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확인해 방지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개선하고 있다.

허진 도 환경복지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호소와 건강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현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지난 15일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 경축식 비대면 거행

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참석인원 최소화
신산업지도 그리는 과정 담은 기념 영상 상영
앞서 도내 생존 독립운동가 자택 방문 위문

전북도는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경축식을 지난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비수도권 확산에 따라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강안 광복회 전북도지부장,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윤실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줌 온라인 시스템 및 유튜브 중계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도민 참여형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광복절을 맞아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고, 코로나19 시대 위기를 극복해가며 전북의 신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는 과정을 담은 광복절 기념 동영상 상영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故 이종철의 손자 나윤철(60년생),씨에게 애족장을, 故 노종선의 자녀 노성인(50년생)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해 송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우리 안에 살아 숨 쉬는 광복정신을 토대로 늘 그려왔던 것처럼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 전북을 같이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0일 광복회 도지부와 함께, 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운동가인 이석규 애국지사님 자택을 방문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위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생태문명 전북' 올 가을 전 세계 안방 속으로

문체부·아리랑TV 등과 협력
전북도 콘텐츠 제작 방송
도내 동부권 5개 시·군
생태관광지 등이 주무대
10~11월 해외 곳곳 송출



지난해 임실 옥정호에서 촬영된 웹 드라마 '수상한 한류스타'.

(사진=전북도청 제공)

'생태문명의 숨터 전라북도' 브랜드와 전북 동부권 5개 시·군의 주요 생태관광지 매력이 전 세계 안방 속으로 찾아 들어간다. 전북도는 올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과 함께, 도내 생태문명 브랜드 및 생태관광지 해외홍보를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4,000만 원)을 통한 드라마 제작 지원 참여와 지자체 매칭(4,400만 원) 웹콘텐츠를 제작한 뒤, 전 세계 105개국에 방송망을 갖춘 아리랑TV 채널과 북미지역 유튜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제히 송출 홍보하는 방식이다.

올 하반기 8~9월 중에 전북 군산시 철길마을 등과 동부권 5개 시·군 생태관광지 현장촬영 일정을 통해서 드라마와 콘텐츠를 제작, 10~11월까지 2개월간 전 세계에 송출 방송할 예정이다.

웹 드라마는 로맨스 드라마 형식으로 군산시 철길마을과 옛날사건관, 마리스사, 초원사진관, 카페 등 다양한 풍경과 배경을 담아낼

예정이다. 웹 콘텐츠는 페루 출신 니르다 산타나(유튜브 구독자 137만) 등 글로벌 인플루언서 4명이 직접 이달 19~21일까지 3일간 도내 5개 시·군 생태관광지를 찾아와 촬영 후,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다.

5개 시·군 생태관광지는 무주 반디랜드, 진안 지오파크, 장수 금강첫물 뜰, 남원 백두대간 탐방로, 임실 성수산 왕의 숲이다. 이번 제작되는 웹 드라마와 웹 콘텐츠는 종전 동남아 위주 해외홍보에서 벗어나, 북미·남미권으로까지도 홍보광역을 확대한 의미가 있다.

도는 특히,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으로 이번 기회

에 '생태문명의 숨터, 전라북도'를 널리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의 경우 한국-베트남 합작 웹 드라마 '수상한 한류스타'와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주 한옥마을과 임실 옥정호 등을 전 세계 안방에 소개, 전북도 관광에 대한 호감도와 인지도를 높였다.

이형열 도 홍보기획과장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해 전 세계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며 "팬션여행 등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온라인 홍보기법 등을 활용에 전북도의 차별성 있는 브랜드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려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